**새 남편**

**7/07 월**

**사 54:5** 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.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의 구속자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린다.

**고후 11:2** 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.

**롬 4:15** 왜냐하면 율법이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.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위법도 없습니다.

**롬 5:20** 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

**갈 2:20-21**  
**20** 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.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.  
**21** 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,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.

**갈 3:24** 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,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어린이 인솔자가 되었습니다.

**7/08 화**

**롬 7:2** 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,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.

**롬 6:6** 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,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.

**렘 31:32** 그것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.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는데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. 여호와의 선포이다.

**호 2:16** 여호와의 선포이다. 그날에는 네가 나를 ‘내 남편’이라 하고 더 이상 ‘바알리’라 하지 않으리라.

**아 6:1** “그대가 사랑하는 이는 어디로 가 버렸나요? 여인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이여. 그대가 사랑하는 이는 어디로 돌아서 버렸나요? 우리 함께 그를 찾아봐요.”  
**아 6:3** 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,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.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.”

**고전 11:3** 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.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,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,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.

**계 19:7** 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.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,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.

**7/09 수**

**롬 7:3-4**  
**3** 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,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.  
**4** 나의 형제님들,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,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,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.

**갈 2:20** 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.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.

**갈 3:27** 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.

**엡 5:23** 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.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.  
**엡 5:32** 이 비밀이 위대합니다.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.

**골 3:4** 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.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.

**7/10 목**

**롬 7:4-5**  
**4** 나의 형제님들,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,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,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.  
**5** 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.

**요 15:5, 8**  
**5** 나는 포도나무요,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,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.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 
**8** 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시고,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.

**갈 5:22-25**  
**22** 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 
**23** 온유와 자제이니,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.  
**24** 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.  
**25** 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,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.

**7/11 금**

1. **롬 7:6-7**  
   **6** 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,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.  
   **7** 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율법이 죄입니까?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!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. 율법이 “탐내서는 안 된다.”라고 하지 않았다면, 내가 탐욕을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.
2. **갈 2:19-20**  
   **19** 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,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.  
   **20** 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.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.
3. **마 5:48** 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,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.
4. **갈 3:2-3, 5**  
   **2** 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,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?  
   **3** 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?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, 이제는 육체로 온전하게 되려고 합니까?  
   **5** 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,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?
5. **7/12 토**
6. **롬 6:4** 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,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
7. **롬 7:6** 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,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.
8. **고후 3:6-8, 15-18**  
   **6** 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.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,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.  
   **7** 더구나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,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 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,  
   **8** 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?  
   **15** 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.  
   **16** 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,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.  
   **17** 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.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.  
   **18** 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.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.
9. **7/13 주일**
10. **엡 5:20-27**  
    **20** 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,  
    **21** 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.  
    **22** 아내 여러분, 주님께 하듯이,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.  
    **23** 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.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.  
    **24** 그렇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,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.  
    **25** 남편 여러분,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, 아내를 사랑하십시오.  
    **26** 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,  
    **27** 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,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